경 제

대기업 협력업체 10곳중 8곳 "경영 위기"

중기중앙회 광주·전남본부 조사 ··· 납품 물량 감소·내수경기 침체 주원인

광주·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현 경영상황을 '위기국 면'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협력 업체들은 또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'대기업의 납품물량 감소' 를 꼽았다.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

도 제시했다.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'2014년 3·4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조사 결과'에 따르면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98개사 가운데 현재의 경영상황 이 '위기 국면'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 은 85.1%(86개사)로, 전분기(72.5%)보다 12.5%포인트나 상승해 협력업체의 어려 움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업체들은 경기상황을 위기국면으로 느 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'내수경기 침체' (83.7%), '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'(15. 1%) '신흥개발국과의가격경쟁'(11.6%), '대외경제환경 악화(10.5%) 순으로 응답 했으며 특히 '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' 은 전분기(9.1%) 비해 6.0%포인트 올라, 대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

또 경영상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 인으로 '대기업 납품물량 감소'를 꼽았으 며 이는 전분기 48.6%에 비해 9.6%포인트 증가한 58.2% 조사됐다.

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"대기업의 매출액 감소가 협력업체의 납 품물량 감소로 이어져 경영악화가 심해지 고 있다"며 "여기에 사업장의 잇단 해외 진출로, 전자업종 협력업체 경우 납품물 량이 전년보다 20~30%나 감소해 경영여 건이 크게 나빠졌다"고 설명했다.

협력업체들은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'(55.4%)을 가장 중 요한 과제로 응답했으며 '지역 대기업 유 치 및 지원확대'(38.6%), '자동차·가전중 심의 지역산업을 다변화'(29.7%)를 요구

했다. 이는 대기업과 외국기업 등을 신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 지역 대기업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방지하 는 정책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이외에도 기업들은 '하남공단 삼성전자 사거리의 교통신호체계 보완' 등 '손톱 밑 가시'를 중기중앙회를 통해 광주시에 건 의했다.

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"2·4분기에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말한 협 력업체는 10곳 중 4곳이었는데, 3분기엔 6 곳으로 늘었다"며 "내수경기 침체와 납품 물량감소가 지속되는 만큼, 광주시가 중 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 다"고 밝혔다.

/임동률기자exian@kwangju.co.kr



금리 2.25%(-0.03)

환율 1061.50원 (-1.60)

기본 옵션만 제공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과 달리 고급형 빌트인 풀 옵션으로 구

성됐다.

여기에 최신식 설비의 입주자 전용 피 트니스센터를 마련해 입주민이면 누구

모델하우스는 순천 홈플러스 풍덕점 주차장 뒤편에 있다. 문의(1599-1129).

나 고품격 헬스 등을 즐길 수 있다.

/임동률기자exian@kwangju.co.kr



'교황의 차' 쏘울 유럽서도 잘나가 지난달 판매량 118% 증가

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당시 '교황의 차'로 관심을 모았던 기아자동차 쏘울이 유럽시장에서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.

17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(ACEA)와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시장에서 쏘 울의 판매량은 총 1627대로 전월의 745대 에 비해 118.4% 늘어났다. 쏘울의 지난달 판매량은 2010년 3월 1880대가 판매된 이 후 54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다. 또 쏘울의 올해 유럽 월평균 판매대수인 839대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.

기아차는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 한 당시 쏘울이 '포프모빌'로 각광을 받은 점이 글로벌 판매량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.

특히 쏘울 판매가 바티칸이 위치한 이 탈리아에서 늘어난 점이 눈에 띄었다. 8 월 이탈리아에서 쏘울 판매는 87대에 불 과했지만 9월에는 217대로 149.4% 증가

여기에 지난 8월부터 유럽지역에서 판 매에 들어간 전기차 쏘울EV도 덩달아 판 매가 늘었다. 쏘울EV는 8월 37대가 판매 된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201대가 판매 되며 앞으로의 판매 전망을 밝게 했다.

/임동률기자 exian@kwangju.co.kr



16일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광운 광주북구청장, 식품유통업체 관계자들이 권윤순 아워홈 상무의 안내로 아워홈 호남물류 센터 내부 물류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. 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식자재 전문업체 아워홈, 호남물류센터 오픈

광주 본촌산단에 지상 3층

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을 찾기 위한 민·관의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한 식 품 제조 유통 전문업체가 광주에 물류센 터를 열어 식자재 사업 분야의 새로운 상 생 모델을 제시했다.

종합요리식품기업 아워홈(대표 이승 우)은 16일 "광주 북구 본촌산업단지에 새롭게 문을 연 호남물류센터를 통해 지 역 중소 식자재업체들과 인프라 및 노하 우를 공유하는 상생의 장을 만들겠다"고

아워홈은 호남물류센터 오픈 전부터 식 자재 구매, 물류, 서비스 분야에서 대기업

과 중소기업간 상생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, 이번 센터 오픈을 계기로 상호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.

이를 위해 지역 소재 식자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센터내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며,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 업무공간과 아워홈 의 첨단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신축한 아워홈 호남물류센터는 광주시 내와 10km 이내에 위치, 접근성이 뛰어나 고 서광주IC, 북광주IC 등 고속도로와 인 접한 장점이 있어 센터 내 입점한 유통업 체들은 아워홈의 선진화된 하역·보관·운 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

이광국 호남식재영업팀장은 "지역 식자 재 유통업체에게 대기업의 핵심 역량과 기 술을 공유코자 센터 개방을 결정했다"며 "구매, 운영, 영업 측면에서의 다양한 시 너지를 통해 매출 증대와 구매단가 절감,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1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아워홈 호남물류센터는 본촌산단 내 연면 적 9128㎡(약 2760평) 부지에 지상 3층 규 모며 냉동창고, 냉장창고, 상온창고, 콜드 존, 물류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. 1일 최 대 150t, 2.5t 트럭 60대 분의 물량을 소화 하게 될 전망이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지지옥션, 광주서 내달 22일 경매 특강 연다

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'경 매, 아는 것이 돈이다'라는 주제로 오는 11월22일 광주 YWCA 회관에서 경매 특강을 개최한다.

환경을 갖췄다. 또 홈플러스, 이마트, 메 가박스, 종합병원 등이 도보권에 모두

모여 있어 생활편의성이 뛰어나다. 순천

만정원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도 쾌적

풍덕 리가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

는 순천 내에서 보기 드문 최신 트렌드 디자인으로 설계된다는 점. 지금껏 중대

형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드럼세탁

기와 벽걸이에어컨, 냉장·냉동고 등의

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

코스피 1918.83 (-7.08)

코스닥 545.49 (-0.02)

집중되고 있다.

까지 누릴 수 있다.

하다.

순천 '풍덕 리가안' 24일 268가구 분양

지지옥션은 이번 특강에서 최고 권위 의 강사진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권리 분석과 가등기 · 가처분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, 고수익물건 선별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강연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 지다.

수강료는 2만원이며 지지옥션 홈페이 지(www.ggi.co.kr)를 통해 사전등록 • 결재 하면 된다. 참석자 전원에게는 지 지옥션 무료이용권, 경매관련도서 1권, 강의 교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. 문의 (02-701-5150).

/임동률기자exian@kwangju.co.kr

신안 하의-장산농협 합병 '남신안농협' 재탄생

신안 하의농협과 장산농협이 합병돼

남신안농협으로 재탄생하게됐다. 16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, 하의농

협과 장산농협 조합원들은 지난 15일 두 조합 합병을 위한 투표를 실시, 하의 농협은 조합원의 74.5%가, 장산농협은 90.3%가 합병에 찬성했다. 이에 따라 양 조합은 다음달 중 대의원총회를 열 어 합병 조합 설립에 관한 제반 절차를

처리하고 통합 농협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권한을 갖는 설립위원을 예정이

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병인가와 정관인가, 등기절차 등을 거쳐 공식 합 병이 이뤄지면 남신안 농협은 조합원수 2100여명, 총자산 948억원, 자기자본 55 억원의 중견농협으로 새 출발하게 된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

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!

경조화환 **7만원** 시외 **8만원**

농협 (박배성) 302-0316-649511

전화, 062)233-9961 Fax, 062)672-9961



